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이호

2020.05.08(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2020년 투쟁 시작!

코로나 딛고 일어나 투쟁 선포!

지부가 7일(목) 13시 경총 앞에서 2020년 임단 투 전진대회 및 경총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시작을 선포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투쟁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재벌과 자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릴 생각만으로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을 앞세운 재벌들은 해고를 좀 더 쉽게 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깎아달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의 책임을 재벌과 정부에게 묻기 위해 경총 앞에서 투쟁을 선포했다.

코로나 핑계 구조조정 용납 못한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지부 대회의실로 이동해서 2020년 지부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재의 위기는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자본 중에서도 한계기업 등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 지역만 해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

위기를 틈타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시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부교섭 상견례에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여력있는 기업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부교섭은 매주 목요일 15시!

지부교섭은 사업장마다 순회하면서 매주 목요일 15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사별로 임원급 교섭위원으로 하되, JCC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팀장이 대표이사의 전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개최 (KDK-코스모링크-JCC-대한이연-보쉬-한온)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5시 실시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6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정성훈 사무국장), 사(대한이연 오태진 이사)
 - 사회 : 노사 윤번제로 진행
 - 서기 : 노(임성우 교섭부장), 사(대한이연 최종영 팀장)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코로나 핑계로 구조조정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노 : 먼저 양해부터 구하겠다. 한 개 사업장이 지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을 못했다. 그럼에도 양해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마 올해는 서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 조금 전 지부 확대간부들이 경총 앞에서 집회하고 왔다. 교섭 자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재벌 비롯한 자본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밀어붙이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30대 재벌들이 그동안 많이 가져갔다. 지금 고용불안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다.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버텨줘야 한다. 한계기업은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노사가 같이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버틸 수 있는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기회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우리 지역에서 몇군데 사업장은 충분히 버틸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장에 진짜 문제가 있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면 우리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그런 것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 올해 교섭은 임금성 보다 조합활동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런 것은 원만히 합의 가능할거라고 본다. 경비 절감 문제는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하겠지만,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보자.

사 : 예기치 않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까지 겹치다보니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다. 항상 피해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몰리고, 가장 아프다.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노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대전충북지역은 성숙한 노사문

화를 갖고 있으니 양보와 지혜를 모아서 예년과 다른 상생 차원의 교섭이 된다면 잘 이뤄지지 않을까 소망한다.

사회 : 교섭원칙 관련해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된 내용이 있으니 사회자가 내용 확인하겠다. 교섭장소는 작년과 역순으로 KDK-코스모링크-JCC-대한이연-보쉬-한온 순서로 하고, 한온까지 한바퀴 순번 돌면 그 뒤로는 계속 한온에서 하지는 것이 사용자측 의견이다.

노 : 그렇게 하자.

사회 : 교섭은 매주 목요일 15시에 개최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실무에서 조율하는 걸로 한다. 교섭위원은 각 사별로 임원급 2인 이상으로 하고, 각사별 1명 이상 참석하는 것을 성원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실무팀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결정권을 갖고 참석하고, 교섭위원이 2회 연속 불참할 수 없고, 급박한 해외출장이 아니면 불가하며, 사전에 지회장과 협의해야 하는 4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사는 사측은 대한이연 오태진 이사, 노측은 정성훈 사무국장이 맡고 사회는 노사 윤번제로 한다. 서기는 사측은 대한이연 최중영 팀장, 노측은 임성우 교선부장으로 하고 교섭 회의록은 차기 교섭 전에 양측 서기가 서명한다. 교섭 중요요구안 추가는 불가하고, 합의한 사항은 재론할 수 없다. 각 사별로 대표이사 위임장은 차기 교섭에서 제출하겠다. 다만, 한국JCC가 내부 사정으로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

사 : 교섭위원을 임원급으로 해야 하는데 JCC가 사장 배환석 팀장에게 대표이사 전권을 위임했으면 한다. 교섭이 원만히 되면 좋겠다.

노 : 사전에 연락받았는데, 그렇게 양해하겠다.

사회 : 차기 교섭은 5/14(목) 15시 KDK에서 하겠다.